

# 5월부터 파란색 번호판 달린 차는 '전기차'

### 국토부,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사용...전기차 특색 살린 디자인

오는 5월부터는 번호판으로 전기차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기존 차량과 다른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해 친환경을 부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시는 15일부터 시행하지만 전기차 번호판 부착은 5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전기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은 지금도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다.

전기차 고유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를 사용한다. 파란색 바탕에는 태극패턴 무늬가 규칙적으로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 그림, EV 등을 그려넣어 전기차 전용 번호판의 특색을 살렸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제도 도입, 제작방식, 규격, 색상에 대한 규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차 번호판은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기존 차량은 페인트를 도색한 번호판을 사용한다. 국토부는 필름 번호판의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



성 등에 관한 기준도 명시했다.

전기차는 주차료,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인데 전용 번호판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대용 기자 wee@

## 플로랄프로렌 등 유해물질 검출 제품 '리콜'

### 국표원, 학생? 생활용품 18개 제품 안전 기준 못 미쳐 수가교환 조치

플로랄프로렌과 자라키즈,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어린이 운동화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 1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쳐 수가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플로랄프로렌 어린이 운동화는 화상이나 따가움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5.5배를 초과했다.

자라 키즈 운동화는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14.7% 높았다. 이랜드리테일의 슈펜 어린이 운동화 역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2.7배, pH가 최대 9.3%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 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올해 제품안전성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와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품목 및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 자세한 리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나와 있다.

김승교 기자 kims@

## 소공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지원 추진

### 중기청, 도시형 소공인 지원계획 수립·발표

### 소공인 혁신자금 신설·공공임찰대행 등 지원

정부가 소공인들이 밀집된 집적지들을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소공인들의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소공인 혁신자금'이 신설되고, 소공인특화센터가 소공인의 공공임찰 참가를 대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밀집(집적지)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19개 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31만 7000개가 있으며, 전체 소공인의 52%가 수도권(16만5000개)에 분포하고 있다.

4대 전략,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이번 종합계획은 중기청이 지난 2년 간 소공인 정책지원 성과와 당면과제를 분석해 마련한 것으로, 소공인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신규인력 유입이 가능한 환경조성, 시장개척 방안 등이 담겼다.

종합계획에선 우선 소공인 집적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 지역을 수준별로 분류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집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준별(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권 집적지는 클러스터 화해 조직, 예산,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하위권에 대해서는 개별 소공인 지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식이다.

또 집적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들 집적지구와 IT밸리·창업타운의 시제품 수요를 연계한 '시제품제작특구' 시범구축사업도 추진된다.

소공인의 제조혁신역량을 높이고,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소공인 혁신자금'도 신설된다. 이 자금은 저금리로 융자되며, 제조설비·검사장비 투자,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투자비로 활용된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공장 확대 기조에 맞춰 소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제조환경을 구축, 공정이 연계된

소공인 작업장끼리 주문정보를 교환하고, 생산진척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시도된다.

시제품제작(서울 문래동), 신발(서울 성수동, 부산 범천동) 등 우수 집적지를 대상으로 공동사업 주관사를 선정, 브랜드 개발과 대외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소공인들에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중기청은 품질관리 및 집적지에 대한 인증마크제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되는 공공조달시장 참가를 위해서도 정부는 소공인특화센터가 소공인의 공공임찰 참가를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한 조달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소공인은 온라인 조달정보를 확인하거나 서류작성 역량이 미흡해 조달시장에서 유통업체가 낙찰 받은 물량을 하청받는 게 일반화됐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매출·고용·생산성 등이 업종 평균보다 높고, 3년 이상 성장세를 유지한 우수 소공인, 숙련기술인에 대해서는 3년 간 우대금리, 보증한도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정일 기자 yunji@

### 한전원자력연료

### 청렴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이재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전으로부터 배우는 청렴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 우암사적공원에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생애와 사상 등 고전을 소재로 한 청렴윤리 특강과 공원 견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2회 격주로 진행된다.

이재희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윤리경영은 기업경영의 기본이자 발전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윤리의식 생활화를 위해 청렴윤리 교육 실시 등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6월 대전광역시와 청렴? 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와 공동 개발한 이 교육 프로그램을 1년여에 걸쳐 시행 중이다. 올해 교육은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8회에 걸쳐 시행된다.

정형석 기자



### 화학융합시험원 GLP 시험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작물 잔류 우수시험실운영기준(GLP)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KTR 웰스케어연구소는 지난 9월 '작물 잔류 포장시험 및 분석시험' 두 항목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GLP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우수시험실운영기준은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

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다. 이번 기관지정으로 KTR은 기존 인축(사람 및 가축)독성 및 환경생태독성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노출시켜 진행되는 작물잔류 분야에서도 GLP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작물보호제(농약)의 전분야 GLP 시험이 가능해져 농약 제조업체 등에 보다 신뢰성 있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2003년 금성독성시험을 시작으로 인축독성, 환경생물독성 등 3개 분야 18개 이상 시험항목에서 GLP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작물잔류 분야에서도 GLP 기관 지정을 획득해 국내 대표적인 GLP 시험기관 위상을 공고하게 구축했다.

KTR은 이번 기관지정에 발맞춰 작물잔류시험 워크숍 등 최신 시험인증을 제공해 관련업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 GLP 시험 노하우 및 인프라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교 기자

### 필룩스 도곡동 고급빌라 '상지리츠빌 카일룸' 첫 삽

감성조명기업 필룩스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의 기공식과 착공식을 진행했다. 착공식에는 시행사인 필룩스와 시공사인 상지건설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은 매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 2438㎡에 지하4층 지상7층 1개동 23세대로 구성돼 있다. 도곡공원과 접해 있어 다른 강남지역의 고급빌라에 비해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상지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최근 결혼한 가수 비, 배우 김태희 부부도 청담동에 있는 상지리츠빌 카일룸에 신혼집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곡동 카일룸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은 최고급 건축재를 사용한 스크린골프장, 라운지, 영화관 등으로 꾸며져 있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방공호 등 완벽한 보안 시설이 있어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중시하는 상위 0.1%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권 및 잠실에서 분양되는 신규 고급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50억 원에서 300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의 분양가는 40억원대에서 70억원대 중반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 것도 인기의 요인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은 착공과 함께 본계약이 시작되며 입주 예정 날짜는 2018년 12월이다.

김승교 기자

ISO 9002·14001  
OHSAS 18001

전기공사 · 소방설비 · 신재생에너지 전문

## 천공전기(주)

천공전기(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전동장선기와

2명으로 설치와 철거가 가능한

바이패스 케이블 드럼장치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하여

선진시공문화 정착에 일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天工電氣(株)

대표이사 曹德承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326  
Tel : 041)562-9411~3 Fax : 041)562-4073  
E-mail : kwj88@nate.com

